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Reciprocity on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from middle-aged children to elderly parents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 교수 고선강**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Koh, Sun-Kang

〈목 차〉

I. 서론	IV. 결과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reciprocity exists in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from middle-aged children to elderly parents. Analyzing data from a sample of 1123 middle-aged adult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ciprocity in the transfer of resources between middle-aged adults and their elderly parents. The possibility of an inheritance shows a very strong effect on care-giving to elderly parents. Furthermore, past financial transfers from parents to middle-aged children correlates strongly with financial transfers from middle-aged children to their elderly parents.

Key Words : 경제적 자원이전(financial resource transfers), 사적이전(private transfer), 돌봄제공(care-giving), 세대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중년기(middle-aged), 호혜성(reciprocity)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09-32A-C00010).

** 주저자·교신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I. 서론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에 의한 노부모 부양을 보편적인 미덕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서구적 개인주의 사고방식의 확산은 가족안에서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을 변화하게 하였다. 201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36%로 2002년 71%, 2008년에는 41%와 비교하여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0).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얼어지고 있으나, 현재 노인들의 다수는 중년기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생활의 측면에서 의존하고 있다. 노인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년층은 동시에 자신의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도 진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어성연·고선강·조희금, 2010), 중년 부모들의 의식도 자녀들이 경제적 성숙을 이룰 때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데 머물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부양 책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50대의 부모들 중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부양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0.5%, 혼인을 할 때까지 부양할 책임을 갖는다고 답한 비율이 32.9%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9). 대학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으로 대학을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혼인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느끼는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은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년층이 갖는 노부모와 성인자녀 부양의 이중부담은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년층의 가계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중년층의 노부모와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은 수직적인 확대가족 구조 안에서 가계간 경제적 자원이전 행동으로 나타난다. 최근 가계간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고,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 등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김지연, 2006; 김지경·송은경, 2004; 고선강, 2008; 황남희·정주연, 2009; 김지경·송현주, 2008; 김순미·박미려, 2008). 이들 연구들은 세대 간 자원이전의 실태와 유형을 분석하고 자원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엄밀하게 살펴보면 세대 간 이전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사적이전은 부모 자녀간의 이전 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 친지, 이웃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와 자녀라는 2세대 간의 자원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각각의 연구에서 설정한 부모의 연령대가 달라 중년층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을 3세대 관계에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따라서 노부모, 중년기 자녀, 성인자녀(손자녀)의 수직적 구조에서 이전되는 자원의 종류를 다양화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중년층의 이중부담과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에서의 갈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자원 이전의 동기에 관한 관심을 가져왔다. 중년의 자녀가 어떠한 동기에서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돌봄을 제공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가설이 자원이전의 호혜성이다(Koh & MacDonald, 2006).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을 단기간 동시적 교류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장기간에 부모와 자녀가 자원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자원이전의 동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원 이전이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자원의 수혜자가 어떤 필요와 요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특성들이 파악되어야 한다. 수혜자의 상태에 따라 제

공자의 자원이전 행동 변화를 분석하여 자원이전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자원이전 행동과 과거의 행동, 미래의 계획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원이전의 장기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자료들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공개된 패널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노후보장패널, 노동패널, 여성가족패널 등은 세대 간 자원이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의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이 가구단위 조사로서 동거하지 않는 가족원(노부모, 성인자녀 등)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들 패널자료를 사용할 경우 세대 간 자원이전의 한쪽 주체에 관한 정보는 풍부하나, 이전의 다른 주체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자원이전의 동기를 검증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예를들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동기를 파악하는데에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소득, 자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 그러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논문들은 동거하지 않는 부모나 성인자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수혜자의 소득, 자산상태를 연구모형에 포함한 연구들이 거의 없다.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은 같은 형태의 자원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형태의 자원이 교환되는 경우도 있다. 특정한 시기에 부모와 자녀의 요구와 자원의 수준에 따라서 이전되는 자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선강, 2008). 중년기의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지금의 경제적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연로한 노부모에게 경제적인 자원을 제공하거나 돌봄을 제공한다면 장기적인 자원의 상호 이전이 성립한다. 또한 중년의 자녀가 노부모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래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상속받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라면, 자원이전의 호혜성에

기초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단기간의 자원이전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적 자원, 돌봄 제공 등에 대한 상호 이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중년 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동시에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중간세대로서의 이중부담이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년기 자녀가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고자 한다. 특히 중년층의 자신의 성인자녀들과의 경제적 자원이전 행동이 노부모에 대한 자원제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중년층의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이중부담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중년기 자녀의 현재의 자원이전 행동, 과거의 부모로부터 자원수혜, 그리고 미래에 자원 수혜 가능성이 노부모에 대한 자원 제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중간세대로서의 중년층의 이중부담과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함께 분석한 중년기 자녀의 특성에 기초한 세대 간 자원이전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세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에 자원을 주고 받는 행동을 세대 간 자원이전이라 한다. 지금까지 세대 간의 자원이전은 주로 생존해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제적 자원을 주고받는 것에 한정시켜 연구해 왔다. 공적이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 사적이전(private transfer)은 특히 친족관계 안에서의 부의 재분배와 세습에 관련된다. 가계 간 이전(inter-household transfer)은 현금, 자산 또는 가시적 자원들을 가계 간에 주고 받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서구의 사적이전에 관련된 연구들은 부동산, 현금, 금융자산 등의 경제적 자원이 부모 세대로부터 어떻게 자녀세대에게 이전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고선강, 2008). 서구사회가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세대에 제공되는 경제적 자원의 이전에 관심을 가져온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 측면에서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대 간 자원이전을 가족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여 보는 관점이 '사회적 지원 교환(social support exchange)'이다.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 금전적 지원, 도구적 지원을 포함하는데(Marks, 1996),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세대 간에 어떻게 교환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사회적 지원 교환에 관한 연구들이다. 사회적 지원 교환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적 자원 보다는 돌보기, 정서적 지원 등에 보다 큰 관심을 두어왔다. 이렇듯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자원이전의 동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원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 이전의 호혜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교환이론을 들 수 있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의 수혜자로부터 미래에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으로 예측되는 자원에 대한 흥정을 하는 것이다. 즉 자원을 제공하는 행동은 인간관계의 호혜성에 기초한다는 것이며,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미래에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다. 미래에 나타날 보상(reward)이 현재의 행동에 따르는 비용(cost)보다 더 크다고 예상될 때 비로소 현재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행동에 대한 보상은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먼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다(Sabatelli & Shehan, 1993). 따라서 자녀와 부모간의 자원이전이 성립하려면, 자녀가 현재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행동에 따르는 비용보다 미래에 부모로부터 제공될 보상의 크기가 더 클 것이라 예상할 때 가능한 것이다.

교환이론에 근거해서 중년기 자녀와 노부모간의 자원이전을 설명하면, 중년기의 자녀가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유산상속, 자산증여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의 자녀가 유산이나 자산증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Bernheim 등(1985)의 전략적 유산상속모형에 의하면, 부모는 자신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경우 자녀들은 유산상속을 염두에 두고 부모에 대한 행동을 결정한다. 부모는 자신에게 더 잘하는 자녀에게 유산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거나 서비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모에게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부모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부모방문, 연락횟수가 빈번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측면으로 중년기의 자녀가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에 노부모로부터 받은 자원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다. 과거에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하여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진 현재에 그 보상으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현재의 보상 제공은 다른

형태의 자원제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Koh & MacDonald, 2006). 즉 과거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상이 현재 중년기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단기간의 자원이전 빈도 분석을 통해서도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의 유형을 나누어 자원교류를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로 상호 자원을 교류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김지경·송현주(2008)는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분석하였는데, 전체 연구대상 가구의 26.6%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기도하고 받기도하는 상호교류 유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김순미·박미려(2008)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고령자 가구의 자녀, 부모, 기타 가족들과의 경제적 자원 교류를 연구하였는데, 전체 표본 1679가구 중 경제적 자원을 주고받는 호혜형 가구는 31가구로 전체의 약2%였다. 이윤정·고선강(2011)은 여성가족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기혼 성인자녀가 어머니와 경제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는 비율이 5.6%로 나타났다.

단기간의 상호교류에 관한 연구들과 더불어 부모로부터 과거에 자원을 제공받은 것이 현재 부모에 대한 자원제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들이 있다. Henretta 등(1997)은 부모가 자녀에게 과거 제공한 경제적 지원이 현재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데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부모 중 한분만 생존해 있는 경우 자녀들 중 누가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자녀가 받지 않은 자녀와 비교하여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가족 안에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돌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Koh와 MacDonald(2006)는 부모와 자녀의 특성과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

서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과거에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녀는 현재 부모에게 돌봄과 시간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경험이 현재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 부모와의 동거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자원이전 행동에서 호혜성을 발견하였으며, 호혜성은 형태가 다른 자원 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Cox와 Rank(1992)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시간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 연구한 고선강(2008)은 과거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가사 및 육아 도움을 제공했거나, 유산상속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재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돌봄 제공, 방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과 전략적 유산상속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돌봄 제공은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자원이전에 영향을 받는 반면 치매부모에 대한 방문은 미래에 부모로부터 주어질 보상에 대한 기대(유산상속)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대 간 자원이전 관련 변인

1) 부모(수혜자)의 특성과 자녀(제공자)의 특성

세대 간 자원이전은 두 대상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원의 수혜자와 제공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수혜자의 특성은 자원이전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다. 본 연구의 자원 수혜자는 노부모이고, 자원의 제공자는 중년기 자녀이므로 노부모와 중년기 자녀의 특성 중

세대 간 자원이전 관련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특성 중, 부모 중 한분만 생존해 있는가,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는가는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돌봄 제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에서 부모가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일때 경제적 자원을 수혜할 확률이 높았고, 손병돈(1999)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없는 부모의 경우 자녀들로부터 소득이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선강(2011)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양친생존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고선강, 2005; Couch, Daly, & Wolf, 1999)에서는 양친생존 여부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데에 유의미한 영향 변인이라고 하였다.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보다 홀로 지내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돌봄을 제공하거나 가사노동 시간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노부모의 연령에 관하여 선행연구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고(McGarry & Schoeni, 1997; 진재문, 1999), 자녀의 돌봄 제공도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한다고 한다(고선강, 2005; Marks, 1996). 노부모의 건강상태는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고선강, 2005; 고선강, 2008), 돌봄 제공에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자녀의 돌봄 제공의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고선강, 2005).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과 돌봄 제공의 차이를 보인다. 김순미·박미려(2008)는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의 사적이전(부모, 가족, 친족 등) 제공 비율이 높다고 하였

고, 김지경·송현주(2008)도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인 경우 81%가, 반면 딸의 42%만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하였다. 고선강(2005)은 자녀가 여성인 경우 남성과 비교하여 노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순미·박미려, 2008; 진재문, 1999; 김지연, 2006; 강성진·전형준, 2005)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반면 자녀의 교육수준과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의 관계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경향성이 높다고 한다(Henretta 등, 1997; 고선강, 2008). Henretta 등(1997)은 형제 자매들 중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고선강(2008)은 치매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사람들이 그 미만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치매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중년기 자녀의 취업 여부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의 측면에서는 소득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돌봄 제공에 있어서는 돌봄 제공자의 시간자원 제약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적 자원의 제공자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김지경·송은경, 2004; 손병돈, 1999; 이윤정·고선강, 2011) 취업을 한 경우 돌봄 제공의 경향성은 낮아진다(Boaz et al., 1999; Marks, 1999; 고선강, 2005). 성인자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기회가 적다고(Couch, Daly, & wolf, 1999)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확률이 높아진다(이윤정·고선강, 2011)는 연구도 있다.

2) 노부모와 중년기 자녀의 경제적 자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원제공자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경제적 자원 제공의 확률이 높아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반면 자원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연구들(McGarry & Schoeni, 1995; McGarry, 1999; Pezzin & Schone, 1999)은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며,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다. MacDonald와 Koh(2006)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거나,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도 제공자의 경제적 수준이 경제적 자원제공에 중요한 영향요인을 밝히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손병돈(1997)의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에 대한 사적이전 확률이 높아지며, 중·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가능성이 높고,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연(2006)은 가구의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김지경과 송은경(2004)도 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녀가 부모와 상호 교류를 하거나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고선강(2008)은 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 자원의 제공자인 자녀의 자산상태가 낮은 경우 자산상태 중간인 경우와 비교하여

자원 이전의 경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원이전 관련 변인들을 독립변수들로 선정하였다. 자원 제공자 또는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인들(자산, 소득 등)은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자원 이전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들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제공자와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 관련 변인들은 통제변수들로 설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의 수혜자인 부모의 특성, 제공자인 중년기 자녀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분석 모형에 포함시켰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년기 자녀와 노부모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자원을 경제적 자원 제공, 돌봄 제공과 미래의 경제적 자원 제공 계획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 1)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자원이전의 호혜성은 있는가?
- 2)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자원이전의 호혜성은 있는가?
- 3)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자원제공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자원이전의 호혜성은 있는가?

2. 분석 자료 및 연구 표본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된 ‘중년기 부부의 세대 간 자원 이전과 노후생활계획(kfr-2009-c00010)’ 연구과제에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한다. 이 연구과제는 중년의 성인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적어도 1인이 생존해 있고, 결혼(이혼, 사별 등)해서 조사대상자 부부와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세대가 존재해야 노부모-중년부부-자녀 간의 자원이전을 관찰 할 수 있고, 경제적 자원이전은 독립된 생활단위를 유지할 때 보다 선명하게 이전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분가의 조건을 두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특별시와 5대광역시(부산, 광주, 대구, 울산, 인천)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거주 가구 수에 비례하여 표집되었다. 총 2067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1679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 기재한 50부를 제외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담당 연구보조원들이 검토한 후에 데이터 파일로 입력하고 확인하였다. 총 1629부의 설문지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과제에서 수집된 설문조사자료 중 설문응답자의 부모가 한분 이상 생존해 있고, 연령이 50-60대인 사람들로 연구표본을 한정하였고, 이들을 ‘중년기 자녀’로 명명하였다. 연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40세에서 60세 사이를 중년기로 간주해왔으나,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중년기를 연장해서 앞뒤로 10년 정도를 더하여 30세에서 75세 사이를 중년기로 보기도 한다(Lechman, 2001). 따라서 50-60대를 중년기 자녀로 간주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노부모와 중간세대의 자녀, 그리고 중간세대를 부모로 둔 자녀 간의 자원이전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중간세대인 50-60대를 중년기

자녀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1123명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들은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관련변수들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제공,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 미래의 경제적 자원이전 의향이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최근 5년간 조사대상자 부모에게 생활비, 사업자금, 주택관련 비용, 부채상환, 의료비, 내구재 구입, 경조사, 단순 증여 등의 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적이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은 최근 1년간 조사대상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간병하거나 돌보아 드린 적이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자원이전과 돌봄 제공의 측정은 자원이전에 관한 다른 조사들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경제적 자원이전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후보장패널, 한국노동패널, 여성가족패널,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urvey(HRS),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는 최근12개월을 기준으로 자원이전 유무를 측정하였다. 반면 미국의 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Oldest Old(AHEAD)는 최근 10년 동안, National Survey on Families and Households(NSFH)는 최근 5년 동안, Wisconsin Longitudinal Study(WLS)는 18세 이후에 부모로부터 미화 \$1000이상을 받은 경우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국내의 조사들은 최근 12개월을 측정기간으로 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보다 장기간의 자원이전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다. 돌봄 제공의 조작적 정의는 국내의 조사들과 미국의 HRS, WLS 등에서 1년을 측정기간으로 정한 것을 참고하였으며, 자원 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Koh & MacDonald, 2006; 고선강, 2008)의 측정기간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경제적 자원이전 의향은 앞으로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3개의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3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들은 부모와 자녀의 자원이전 관련 변수들이다. 부모와의 자원이전은 종속변수로 설정된 자원이전과 다른 방향, 다른 종류의 자원이전 행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수혜는 최근 5년간 응답자 부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적이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과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는 조사대상자가 결혼 한 이후부터 최근 5년보다 이전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적이 있는가, 부모로부터 상속가능성은 앞으로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자녀와의 자원이전은 최근 5년간 자녀로부터 또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 적이 있는가로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제공,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 부모의 특성과 중년기 자녀(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포함시켰다. 부모특성으로 양친생존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는 1, 두분 중 한분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부모연령은 부모님 두분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아버지의 연령을, 두분 중 한분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생존해 있는 부모님의 연령으로 측정하였다. 부모건강상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5점 척도로 구성된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부모 중 적어도 한분이라도 ‘나쁨’ ‘매우 나쁨’에 답한 경우 부모건강상태를 ‘나쁨’으로 1로 코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부모독립주거는 부모가 독립적인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자산상태는 자산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약 34.4%를 차지하였고, 부모의 자산

수준을 모르거나 답하지 않은 비율이 약 18.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자산상태를 연속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변수로 변환하였다. 부모자산이 없는 사람들과 무응답인 사람들을 각각의 집단으로 묶고, 남은 사람들(부모의 자산수준을 답한 사람들)을 3분위로 나누어 각각 부모자산하, 부모자산중, 부모자산상으로 명명하였다. 부모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중년기 성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모님의 경제적 상태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점이 매우 나쁨, 3점이 보통, 5점이 매우 좋음이다.

자녀관련 특성은 연령, 성, 교육수준, 취업여부, 건강상태, 자녀수, 가계소득, 가계자산이 사용되었다. 이 중 연령은 만 나이를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와 대학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상태는 응답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녀수는 응답자와 배우자 슬하의 자녀수로 측정하였다. 가계소득은 최근 1년간 가구원들의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하였고, 가계자산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 실물자산을 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모형에는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의 중간층과 하위 상위층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가변수로 투입되었다.

4. 표본의 일반적 특성

연구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표본에 포함된 중년기 자녀의 66.8%가 최근 5년간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최근 1년 동안 부모에게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1.9%였다. 또한 앞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6%였다. 우리나라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의 경향을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들은 한국노동패널의 중고령자조사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 등이 있다. 한국

노동패널 6차 자료를 분석한 김지연(2006)은 전체 성인자녀 가구 중 거주주 및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교류하는 가구가 약 55.4%라고 하였고, 같은 자료 중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연구한 김지경·송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소득 이전을 제공한 가구가 전체의 81.4%라고 보고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고선강(2011)의 연구에서는 중·노년기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비율이 28.5%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제적 자원 제공 비율의 차이는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자원이전의 측정기간을 최근 1년으로 설정하였다는 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성인자녀의 연령분포가 다르고, 부모와 배우자 부모를 함께 측정하거나, 동거하다가 분가를 했다는 특수한 관계 등이 반영된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자원이전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중년기 자녀가 자신의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비율은 60.9%,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은 비율은 40.9%였다. 또한 중년기 자녀가 최근 5년간 노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은 비율은 16.2%였고, 5년보다 더 이전에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비율은 18.3%였다. 미래에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7.5%였다. 연구표본에 포함된 중년기 자녀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양상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은 66.8%로 높으나 노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비율은 16.2%로 낮았고, 과거에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비율도 낮았으며,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년기 가정의 자녀와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살펴보면 제공 비율은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보다 낮았으나,

자녀로부터 수혜 비율은 부모로부터 수혜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에 관한 특성으로 연구표본의 18.3%가 양친이 생존해 있고, 아버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가 11.9%, 어머니만 생존해 있는 비율이 69.7%였다. 부모의 평균연령이 83.21세였고, 표준편차는 5.49세였다. 연구표본의 연령대가 50-60대이므로 부모의 연령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어머니만 생존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건강상태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적어도 한분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4%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각각 아버지의 건강상태는 평균 2.89점, 어머니는 평균 2.69점으로 보통과 나쁨의 사이로 나타났다. 부모가 부모의 집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약 59%였다.

부모의 자산상태는 부모 명의의 자산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34.4%, 부모의 자산상태를 잘 모르거나 답하지 않은 비율이 18.8%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산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46.8%)을 3분위로 나눈 결과 1분위는 5000만원 이하, 2분위는 5000만원 초과 1억8000만원 이하, 3분위는 1억8000만원 초과로 구분되었다. 이를 부모자산 상태를 상·중·하로 명명하였다. 중년기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의 경제 상태를 주관적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평균 2.78점으로 부모의 경제 상태를 평가하였다.

중년기 응답자와 가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57.13세이고, 여성의 비율이 77.7%였고,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33.3%였다. 현재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1.7%였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3.49점으로 보통과 좋음의 사이로 나타났다. 자녀는 평균 2.28명이었다. 중년기 자녀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을 측정하였는데, 월평균 가계소득은 평균 475만원이었고, 중위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수	coding	빈도 (평균)	비율 (표준편차)	
종속 변수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	1=제공 0=없음	736	66.8%	
	부모에게 돌봄 제공	1=제공 0=없음	430	41.9%	
	부모에게 미래의 경제적 자원제공 계획	1=있음 0=없음	733	67.6%	
독립 변수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	1=제공 0=없음	684	60.9%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1=수혜 0=없음	459	40.9%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1=수혜 0=없음	182	16.2%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1=수혜 0=없음	205	18.3%	
	부모로부터 상속가능성	1=있음 0=없음	84	7.5%	
부모 특성	양친 생존	1= 양친부모 생존 0=부 또는 모 생존	206	18.3%	
	부생존		134	11.9%	
	모생존		783	69.7%	
	부모연령	만 나이	83.21세	5.49세	
	부모 건강상태	1=부 또는 모 건강상태 나쁨 아버지 건강상태(5점 척도)	431	38.4%	
		어머니 건강상태(5점척도)	2.89점	0.89점	
	부모독립주거	1=독립주거 0=독립주거 아님	2.69점	0.91점	
	부모자산0	1=독립주거 0=독립주거 아님	615	59%	
	부모자산하위	부모 자산 0원	386명	34.4%	
	부모자산중위	0원 초과~5000만원 이하	186	16.6%	
	부모자산상위	5000만원 초과~1억8000만원 이하	168	15%	
부모자산무응답	1억8000만원 초과	172명	15.3%		
부모 주관적 경제상태	부모 자산 상태를 모름	211명	18.8%		
	1=매우 나쁨 3=보통 5=매우 좋음	2.78점	0.80점		
조사 대상자 특성	연령	만 나이	57.13세	4.23세	
	성	0=남성	247	22.3%	
		1=여성	859	77.7%	
	교육수준(대학이상)	1=대학이상 0=고졸이하	369	33.3%	
	취업여부	1=소득활동 함 0=하지 않음	574	51.7%	
	건강상태	1=매우 나쁨 3=보통 5=매우 좋음	3.49점	0.69점	
	자녀수	명	2.28명	0.73명	
	가계소득	중위수 400만원	475.38만원	399.32만원	
		가계소득1	270만원 이하	278	24.8%
		가계소득2	27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341	30.4%
		가계소득3	400만원 초과~580만원 이하	188	16.7%
		가계소득4	580만원 초과~	264	23.5%
		가계소득 무응답		52	4.6%
		가계자산	중위수 30000만원	56810.31만원	79591.06만원
		가계자산1	0만원 초과~16000	253	22.5%
가계자산2	16000만원 초과~30000만원 이하	253	22.5%		
가계자산3	30000만원 초과~62000만원 이하	253	22.5%		
가계자산4	62000만원 초과~	252	22.4%		
가계자산무응답		112	10.0%		

수는 400만원이었다. 가계자산은 평균 5억6천8백만원이고, 중위수는 3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에 대해 답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4.6%, 10%였다.

5. 분석방법

중년기 자녀의 자원이전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3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3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종속변수들이 이항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독립변수들은 자원이전 관련 변수들로 모두 이항변수들로 투입되었고, 통제변수 중 부모자산, 조사대상자의 가계소득, 가계자산은 가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들, 통제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가 특정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오즈비(odds ratio)를 제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20.0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해석

중년기 자녀의 세대 간 자원이전 행동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 특성과 조사대상자 특성을 통제한 3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적 자원 제공 모형(모형1)과 돌봄 제공 모형(모형2)은 현재 부모에게 제공한 자원에 관한 분석이고, 미래 경제적 자원 제공 모형(모형3)은 미래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의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자원제공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적 자원 제공 모형(모형1)에서

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부모에게 돌봄 제공, 부모로부터 상속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 모형에서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 부모로부터 상속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미래 경제적 자원 제공 모형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과거에 부모로부터 수혜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원 제공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년기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하는 경우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자녀가 자신의 자녀와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경우, 교류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오즈비를 비교해 보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하는 경우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우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중년기 자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중년층은 어느 한쪽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한쪽에 대한 제공을 포기하기보다는 양쪽을 다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중년기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경제적 자원 제공에 있어서 중년기 자녀는 양쪽 세대(노부모와 성인자녀) 모두에게 유사한 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년층이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에서 누구를 더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Grundy & Henretta,

2006)에서 경제적 자원 제공 여부의 결정은 노부모에게나 자녀에게 모두 같은 방향으로 결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년기 가정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받는 경우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방향이 아랫세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Cox와 동료들(1998)에서 언급한 세대 간 이전에 있어서 전시효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인이 된 손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중년의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부모와의 자원이전 관련 변인들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부모에게 간병 또는 돌봄을 제공한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은 높았다. 부모로부터 미래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현재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도 높았다.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과 경제적 자원 제공이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제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년기의 자녀가 노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돌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자원도 함께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제공과 경제적 자원 제공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Boaz et al, 1999; Koh & MacDonald, 2006; 고선강, 2008)을 지지하는 것이다. 미래의 상속가능성이 없는 경우 현재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미래에 돌아올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현재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환론적 관점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유산을 상속할 여력이 없는 경제 상태인 경우 부모의 경제자원의 부족을 채워주려는 의도로 경제적 자원이 제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돌봄 제공 모형에서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은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 앞으로 상속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부모와 최근 경제적인 교류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오즈비를 비교해보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가 부모로부터 수혜한 경우보다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돌봄 제공과 경제적 자원 제공은 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돌봄 제공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성격보다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동반하여 같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부모로부터 제공될 경제적 자원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돌봄 제공의 확률이 높다는 것은 현재의 돌봄 제공이 미래의 보답에 대한 기대에 근거한다는 전략적 유산상속모형과 교환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선강(2008)의 치매부모에 대한 시간자원 이전 연구에서 유산상속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치매부모를 주1회 이상 방문하는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돌봄 제공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 부모로부터의 상속가능성의 오즈비가 가장 높아서,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은 미래의 보답에 대한 기대가 강력한 동기임을 알 수 있다.

부모에게 미래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것인가(모형3)는 자녀와의 경제적 교류가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은 경우에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지 않았으나, 그 이전 과거에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

공할 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장기적 관점에서 호혜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모형1에서 최근 5년간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기간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받는 것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모형3에서도 최근5년간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받은 것은 부모에게 미래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의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간의 부모 자녀 간의 자원이전에는 호혜성이 발견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존

〈표 2〉 중년기 자녀의 세대 간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통제 · 독립 변수 (준거집단)		모형1		모형2		모형3	
		경제적 자원 제공 (n=959)		돌봄 제공 (n=959)		미래 경제적 자원 제공(n=959)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독립 변수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	.486***	1.626	.063	1.065	.446***	1.562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682***	1.978	-.146	.864	.596***	1.815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070	.932	.505***	1.657	-.694***	.500
	부모에게 돌봄(경제) 제공	.920***	2.509	.922***	2.514	.310*	1.364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136	1.145	.084	1.087	.368*	1.445
부모 특성	부모로부터 상속가능성	-.800***	.450	1.103***	3.013	-.305	.737
	양친생존	.026	1.026	-.579***	.561	-.162	.850
	부모연령	-.006	.994	.030*	1.030	-.041**	.959
	부모 건강상태 나쁨	-.136	.873	1.035***	2.816	-.388**	.678
	부모독립주거	.010	1.010	.154	1.166	.005	1.005
	부모자산0	-.179	.836	.226	1.254	-.070	.932
	부모자산상위	-.060	.942	-.240	.786	-.547**	.578
	부모자산무응답	-.531**	.588	-.156	.856	-.305	.737
조사 대상자 특성	부모 주관적 경제상태	-.400***	.670	-.149	.862	-.286***	.751
	연령	.022	1.022	.035	1.036	-.061***	.940
	성	-.211	.810	.007	1.007	-.552**	.576
	교육수준(대졸이상)	-.284	.753	.329*	1.390	.389**	1.476
	취업여부	.176	1.193	-.175	.839	.273	1.314
	건강상태	.097	1.102	-.023	.977	.175	1.191
	자녀수	-.147	.863	.253**	1.287	.030	1.031
	가계소득1	-.197	.821	.197	1.218	-.262	.769
	가계소득4	.664***	1.942	.296	1.345	.566**	1.762
	가계소득 무응답	.176	1.193	.346	1.413	.077	1.080
상수	가계자산1	-.680***	.507	-.121	.886	-.154	.858
	가계자산4	.436*	1.546	-.192	.825	.274	1.315
	가계자산무응답	-.399	.671	-.142	.867	-.179	.836
	상수	.871		-6.423		8.300	
모델 χ^2		149.78		163.22		135.81	
-2 log likelihood		1067.33		1107.06		1075.57	
Nagelkerke R ²		.201		.213		.184	

*p< .1 **p< .05 ***p< .01

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자원이전의 호혜성은 다른 종류의 자원 간에 성립을 검증한 선행 연구들(Bernheim, Shleifer & Summers, 1985; Henrreta et al., 1997; Koh & MacDonald, 2006)과는 달리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 안에서 호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고, 우리나라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연구한 고선강(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통계변수로 투입한 부모(수혜자)의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자원 제공 모형(모형1)에서는 부모자산 무응답과 부모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성인이 인지한 부모의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돌봄 제공 모형(모형2)에서는 부모 중 한분만 생존해 계신 경우 양친이 생존해 계신 경우와 비교하여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아진다.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중 한분 이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에서 부모의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들을 통해 중년기 자녀는 노부모(수혜자)의 요구가 큰 상황일 경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에 대한 요구가 있고, 중년기 자녀는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듯이, 돌봄 제공에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영향요인이 아니었고 홀부모, 고령, 나쁜 건강상태와 같이 돌봄의 요구 큰 경우 돌봄 제공의 동기가 되었다.

미래 경제적 자원 제공 모형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 미래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의향이 높았

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므로 상대적으로 부모의 연령이 낮고 현재는 건강한 경우, 미래에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자산상태가 중간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위(1억 8000만원 초과)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미래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낮았다. 또한 부모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미래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았다. 중년기 자녀가 미래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계획에서도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필요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3개 모형에서 부모의 특성 중 유의미한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년기 자녀는 노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하여 자원을 이전하거나 자원이전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이전에서 수혜자의 입장과 상황이 고려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자원이 제공된다는 것은 이타주의적 동기(Becker, 1991)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적 자원 제공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이었다. 가계소득이 4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계소득 2분위, 3분위에 속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가계자산 중간 2, 3분위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1분위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낮았으며, 4분위의 사람들은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돌봄 제공 모형에서는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미래 경제적 자원 제공 모형은 중년기 성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인 경우, 대졸 이상이고, 가계소득이 4분위에 들어가는 경우 미래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 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자원 이전의 호혜성과 중년층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중부담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제공에 과거, 현재, 미래의 자원이전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중년기 자녀와 노부모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확인되었다. 중년기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미래에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의향이 높아진다. 또한 미래에 부모로부터 상속가능성이 있을 때 현재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자원이전이 미래의 자원이전에, 미래의 자원이전의 가능성이 현재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 이전의 호혜성이 성립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세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다른 종류의 자원으로 성립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Henretta 외, 1997; Koh & MacDonald, 2006; 고선강, 2008)들과 유사한 측면이 발견되는 부분이다. 부모가 과거에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 중년기 자녀가 미래의 부모에 대한 자원 제공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녀가 받은 것에 대한 보답(reward)으로 미래의 행동을 계획함을 의미하며 교환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동시에 미래에 기대되는 보상(유산상속)을 염두에 두고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교환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중년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일정 부분은 과거에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측면으로, 다른 부분은 미래에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제공은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것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미래에 부모로부터 상속가능성이 없는 경우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중년의 자녀가 노부모에게 현재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 자원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더 강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세대 간 자원이전은 대부분 이타적인 동기(이윤정·고선강, 2011; 손병돈, 1999) 또는 효 사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진재문, 1999; 손병돈, 1999; 김지경·송현주, 2008)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노부모의 손자녀 돌보기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자원이 제공되는 경우(황남희·정주연, 2009)에서 교환주의적 동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노부모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동이 어느 정도 호혜성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면, 노부모 세대에 대한 효 사상이 희박해지더라도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은 계속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현재 20-30대들은 부모로부터 양육, 교육, 결혼에 까지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세대이고, 이들이 부모와의 자원이전에 호혜성에 근거해 행동한다면 현재의 중년층이 노년기에 들어갔을 때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재검증과 면밀한 검토가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중년층 자녀와 노부모의 자원이전 행동과 20-30대 자녀와 중년층 부모의 장기적 자원이전 행동의 차이를 비교 연구할 때 우리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와 부양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중년층의 중간세대로서의 이중부담이 확인되었고, 3세대 간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은 아랫세대에서 윗세대로 가는 방향이었다. 본 연구의 중년층의 연령은 50-60대이고, 노부모의 평균 연령이 83세이고, 중년층의 자녀들 연령대는

20-30대로 추측할 수 있다. 중년기 자녀가 20-30대의 자녀들과 경제적 자원을 주고받는 경우,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중년기의 성인들은 노부모 부양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다른 쪽에 대한 지원을 막기보다는 독려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년층이 동시에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가는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없으나, 한쪽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지원하기 보다는 양쪽을 모두 지원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년층이 현실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년층의 이중부담이 3세대 중 중간세대로서 노부모와 성인자녀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년기 자녀가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때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미래에 제공할 의향이 높아진다. 3세대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방향성이 아랫세대에서 윗세대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자녀세대의 경제적 자원이 중년기를 통해서 노부모에게 전해지는 것인지, 중년층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전시 효과로 20-30대의 자녀들이 중년의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인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0-60대 중년층의 노부모 부양에는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50-60대 중년층은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돌봄 제공에는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공존하고 있었다. 노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경우, 유산상속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중년층의 자녀들은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였

다. 또한 부모님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부모의 연령이 높고, 건강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는 상관없이 중년의 자녀들은 부모를 돌보았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나라 중년층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이타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시에 미래에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측면도 나타났고, 상속의 가능성이 돌봄 제공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효과도 다른 노부모 관련 특성들 보다 강력했다. 노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동기는 호혜성과 교환적 동기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노부모에게 미래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의향은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 더 높아졌고, 이것은 과거와 미래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의 동기는 자원의 종류, 주고받는 시기, 제공자와 수혜자의 연령과 특성 등에 따라 다른 동기들이 발견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원이전과 관련된 특성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어느 연령대의 부모와 자녀인가, 어떤 자원을 언제 주고받았는가, 장기적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가 등이 고려될 때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의 동기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성진·전형준(2005).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10(1) 23-46.
- 2)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3)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지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209-229.
- 4) 고선강(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 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57-175.
- 5) 김순미·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6)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7)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8)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9) 김지연(2006). 성인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 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0) 손병돈(1999). 부모 부양의 동기와 재분배 효과 : 가족간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2), 59-78.
- 11) 어성연·고선강·조희금(2010).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19.
- 12)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지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13) 진재문(1999).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분석. 사회복지연구, 13(0), 167-199.
- 14) 통계청(2010). 2010 사회조사 결과. www.nso.go.kr.
- 15) 황남희·정주연(2009). 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 비교분석. 2009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1-22.
- 16) Becker, 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7) Bengston, V., Rosenthal, C., & burton, L., (1990). Families and aging: diversity and heterogeneity. In Binstock, R. H., & George, L. K.(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ition, Academic: San Diego.
- 18) Bengtson, V. L., & Roberts, E.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56-870.
- 19) Bernheim, B. D. et al.(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045-1076.
- 20) Boaz, R. F., Hu, J., & Ye, Y(1999). The transfers of resources from middle-aged children to functionally limited elderly parents. The Gerontologist 39, 648-657.
- 21) Couch, K, A., Daly, M. C.. & Wolf, D. A.(1999). Time? Money? Both?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o older parents. Demography, 36(2), 219-232.
- 22) Cox, D., & Rank, M. R.(1992).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 23) Cox, D., Eser, Z., & Jimenez, E.(1998). Motives for private transfers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5, 57-80.
- 24) Grundy, E., & Henretta, J. C.(2006).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A new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d by the 'sandwich generation'. Ageing & Society, 26, 707-722.

- 25) Henretta, J.C., Hill, M. S., Li, W., Soldo, B. J., & Wolf, D. A.(1997). Selection of children to provide care: The effect of earlier parental transfer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110-119.
- 26) Koh, S., & MacDonald, M.(2006). Financial reciprocity and elder care : Interdependent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 420-436.
- 27) Lachman, E.(2001).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 28) MacDonald, M., & Koh, S.(2003). Consistent motives for inter-family transfers: simple altruism.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4(1), 73-98.
- 29) Marks, N. F.(1996). Caregiving across the lifespan: National prebalance and predictors. *Family Relations* 45, 27-36.
- 30) McGarry, K.(1999).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tended beques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3, 321-351.
- 31) McGarry, K., & Schoeni, R. F.(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 32) McGarry, K., & Schoeni, R. F.(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 Results from the asset net worth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33) Pezzin, L. E., & Schone, B. S.(1999). Parental marital disrup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Demography*, 34, 287-297.
- 34) Sabatelli, R. M., & Shehan, C. L.(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P. G. Boss et al.(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 A Contextual Approach* (385-411). NY : Plenum Press.

- 투 고 일 : 2012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4월 17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5월 21일